

10 인터뷰-20억 장학금 기부한 김인선 여사



김인선 여사는 남편이 평생토록 일궈온 경희대학교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말한다.

(사진=이지수 기자)

남편의 일생 담긴 우리학교에 기부 “사회 진출하는 데 운연장학 도움됐으면”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지난 2022년 3월, 우리학교에 ‘운연(雲淵) 장학금’이 신설됐다. 장학금금은 우리학교 신문방송대학원故 이규중(정치학) 명예교수의 배우자인 김인선 여사의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 장학금 명칭 운연(雲淵)은 이 교수의 아호다. 운연 장학금은 지금까지 4개 학기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학생이 운연 장학금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 운연 장학금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우리신문이 김인선 여사를 만나봤다.

2022년 시작한 운연장학금 653명에 12억 원 지원

운연장학금은故 이규중(신문방송대학원) 명예교수 유족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으로, 계열과 무관하게 등록금의 반액을 졸업까지 지원하는 생활비 명목 장학이다. 김인선 여사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20억 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을 쾌척했다. 지난 2022학년도 1학기를 시작으로 총 4개 학기에 걸쳐 장학생이 선발됐으며 현재까지 누적 대상 인원만 653명, 장학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최근 김 여사의 소식이 들려온 곳은 경희의료원이었다. 몇 달 전 대리석 바닥에 넘어져 고관절에 금이 갔고, 거동이 어려워진 탓에 정형외과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은 한방병원에 입원해 3개월 넘게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1970년대 초 경희의료원 공사 당시, 이 교수는 의료원 개원에 밤낮없이 매진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를 떠올렸는지 김 여사는 “경희의료원은 그 당시 남편이 매진했던 곳인데 지금 내가 여기에 입원해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라며 미소를 보였다.

숙명여자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김 여사가 이 교수를 처음 만난 건 다름 아닌 우리학교 본관이었다.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美源)故 조영식 박사와의 인연으로 김 여사는 지금의 재무회계팀인 우리학교 경리과에서 잠시 일하게 됐고, 그때 김 여사의 나이는 20대 후반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신문방송국에서 사용할 예산을 받으러 경리과를 찾았고 둘은 인연이 됐다.

김 여사의 배우자인 이 교수는 1955년에 창간된 신흥대학보(현 대학주보)의 초대 편집장을 지냈으며 이후 1957년 ‘대학의 소리 방송국’ 설립, 영자신문 ‘대학생활’의 창간을 주도하며 현 신문방송국 3개 매체의 기초를 다진 주인공이다. 정치외교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신문방송국장(1968년), 사무처장(1972년), 출판국장(1980년), 신문방송대학원장(1991년) 등을 역임했고 1993년 정년 퇴임 이후에도 학교법인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학 발전에 기여했다.

김 여사는 “직원 통근버스를 타

면 내가 광화문 쪽에 내리곤 했거든요. 내가 내리면 우리 남편도 항상 같이 내려서 커피 한잔하자며 접근해 오더라고요. 아주 대범했어요”라며 이 교수의 적극적인 구애에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어 “나도 남편한테 무리한 요구를 안 했고, 또 조금 요구하면 남편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며 가정을 특히나 사랑했던 이 교수를 회상했다.

잠이 항상 모자랐던 27년간의 약국 운영 기부금 마련의 초석 돼

30대에 김 여사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솔당약국’을 개업하고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약국을

지키며 조제 관련 서적을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던 덕에 약국은 성황을 이뤘다. 주변에 약국이 하나둘씩 생겨났고 그 근처가 약국 골목으로 불릴 정도였다. 김 여사는 한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약국 건너 한 옥에 세 들어 사는 청년이 있었는데 열이 난다고 약을 지어가더니 10분 만에 열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았어요” 27년간 한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항상 잠이 모자랐지만, 그때의 과정이 오늘날 운연 장학금 기금의 초석이 됐다.

제작년 겨울,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 20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김 여사는 “딸이 하나 있는데 먹고 살 만큼 가졌고, 나도 이렇게 큰돈은 필요하지 않았다”며 기부를 처음 고민하게 된 때를 설명했다. 이어 “이 돈을 어디에 써야 좋겠느냐고 기도했는데 뇌리에 스친 음성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부를 결심한 큰 이유는 남편이 평생토록 일하고 일궈온 경희대학교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기부 이후 학교를 둘러보던 김 여사는 “남편과 예전에 봤던 경희대학교는 정문과 본관, 그리고 건물 몇 채가 전부였는데 언제 이렇게 우수한 학교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가탄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 교수가 아직도 눈에 선한 듯 “눈을 감아야 생각이 안 나지. 눈 뜰 때에는 늘 생각이 나요”라며 “영원히 딴 세상으로 가서 그리워한다고 보지도 못하겠지만 마음으로는 많이 그립다”며 남편을 향한 깊은 속마음을 드러냈다.

운연 장학은 다른 장학금과 달리 그 대상이 3학년 이상 재학생이라는 차별점을 갖고 있다. 이 또한 김 여사의 깊은 속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 여사는 “사회 진출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매 학기 장학생의 7~80%가 자발적으로 김 여사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내가 베푼 것도 얼마 없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부끄럽지. 편지를 읽다 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장학생의 진심 어린 편지는 김 여사로 하여금 이 일을 생의 가치로 여기게끔 만들었음이 분명했다. 한 장학생은 “제 고단한 인생에 따뜻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운연 장학에 대해 “3, 4학년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이 사회 진출할 때 요긴하게 사용했으면 한다”는 말을 남겼다.



지난 2022년, 운연 강의실 현판 수여식에 참석한 김인선(오른쪽) 여사의 모습이다. 김 여사는 운연 장학이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사진=대학주보 DB)